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무용

‘균형감’속에, 더 발전된 예술문화정책 수행토록

culture 'art

오늘의 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체와 개별자들이 모여 이른바 하나의 예술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어느 한 편만을 지지하거나 편애하게 된다면 전체의 균형이 모두 깨어지고 만다. 전체적으로 균형자적인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문화정책의 지원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새로 선임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라는 것이다.



김태원
- 춤 평론가
- 「공연과 리뷰」 편집인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반관료적 체제를 벗어나 민간인 위주로, 보다 현장 접근적인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쩌면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문화예술행정의 관행이 크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다음 두 가지 것을 지적해 둘 수밖에 없다.

균형감 유지하는 위원회 기대

첫째는 ‘균형감’의 유지이다. 이때 균형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두 가지 축과 연관되는 균형감이라고 본다. 그 하나는 다양한 이질적인 예술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 존재와 힘의 균형과 연관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기존에 있어 왔던 이른바 예술계 그 주변의 예술집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는 최근 등장한 민예총이라고 하는 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예술집단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양자들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독립적인 예술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예술단체나 개인들이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무용계만 하더라도 그 양자 중 하나에 속한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제 3의 그룹(독립적인)에 몸담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그런 다양한 조직체와 개별자들이 모여 오늘날 이른바 하나의 예술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어느 한 편만을 지지하거나 편애하게 된다면 사실 전체의 균형이 모두 깨어지고 만다.

이른바 현 전권의 코드 맞추기에 의해 어느 특수 라인만이 존중되고 혜택을 받게 된다면, 보다 조화로운 가운데 전문적인 문화정책을 펼쳐가기 위한 이번의 정책변화가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예술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 속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예진흥원이 창설되어 과거 30년 간 이루어 왔던 것들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것과 병행되어 왔던 한국의 현대 예술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

고 본다.

물론 나는 억지로 여기서 그 첫 번째 상황과 연관하여 모든 예술계의 구성인자들을 의무적으로 똑같이 존중해 주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 즉, 구태의연한 관료적 '형평주의적 가치관'이라는 족쇄에서 이제는 크게 자유로워 지되, 그러나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의 깊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뜻이다.

문화전쟁시대에 맞는 문화정책을

두 번째는 이제는 '문화의 새마을정책이 끝났음'이 깊게 자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과거 30여 년 간은 이른바 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급한 대로 여러 인위적인 문화정책들이 발상되어 시행되었던 시기였다. 마치 근대화 혹은 현대화를 위해 우리가 1960년대에 새마을 정책을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7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은 어쩌면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현대문화를 어떤 단계 위에 올려놓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기는 끝났다고 본다. 이미 내적으로 많은 예술 관련 집단이나 개인들이 나름대로 성숙해 있고, 또 외적으로는 이른바 세계화, 국제화 등의 흐름에 의해 국가 간 혹은 개인 간 예술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의 우열이 매겨지는, 달리 말해 치열한 문화전쟁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인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크게 지원되어야 할 부분과 또 크게 보호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 가능성이 일단 점차 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정책을 시행해가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그 결과 앞서 언급된 형평주의적 잣대에 의해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의 경계가 없어지거나 희미해진 것들은 이제 뚜렷한 새로운 경계가 재설정되면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이미 상당한 예술성의 축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은 이전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작업하면서 더 나아가 국내적 차원을 벗어나 국제적 차원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정책은 그 힘을 북돋워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진정한 '예술적 성취'와 일부 대학예술집단들이 주도하였던 '교육적 효과' 간의 경계도 더 뚜렷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나의 지적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호 모순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균형자적인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문화정책의 지원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 나는 이것이 비단 나 혼자만의 지적이 아니고, 새롭게 선임된 위원들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 될 것이라고 나는 본다.

Arts
Together

Arts Council KOREA